

광 고

원양산업

제 1138 호
(2021년 10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4
- 원양 오징어채취기 업계, 강화되는 어선 안전 및 선원복지 기준 준수 위해 해외 전문가 초빙, 점검 실시 / 5
- 원양어선 안전펀드 신조 어선 취득세 감면 / 6
- 협회,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 6
- 해외수산업협력센터, PNG·태평양 도서국 투자 설명회 개최 / 7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8

■ 요리 만들기 / 16

(꽂치 간장조림 김밥)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1년 9월 보고 내용 / 17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1,300 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도 / 21
-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최저치 기록 / 21
- WCPFC 과학위, 날개다랑어 어획 감축 제안 / 22
- PNA 항구 전채량, 지난해 대비 26% 증가 / 22
- 日, 상반기 냉동 참치 수입량, 지난 5년간 최저 / 23
-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중간가격, 1,100엔 근접 / 23
- 日 재무성, 1~8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4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192 달러로 하락 / 25
- EU 육류세 부과 움직임, 지속가능 참치에 기회? / 25
- RFMO 등록 선망선, 소형 증가, 대형 감소 / 26
- 타이유니온, 식품 품마·색소·코팅 분야 전략적 투자 / 26
- 지난 5년간 중서부태평양 dFAD 배치 약 10만 건 / 27
- 타이유니온, DNA로 참치 추적 / 27
- 중국 참치 가공 분야 성장 추세 / 28
- 프랑스 Sapmer사, 선망선 2척 매각 완료 / 28
- 이탈리아 인구 99%, 참치캔 섭취 / 29
- 영국 시장 판매 1위, 참치에서 다시 연어로 / 29
- 환경 NGO, 월마트에 지속가능 참치캔 공급 추진 / 30
- EU 참치캔 시장 성장 여지 있어 / 30
- 아침식사, 참치캔 시장에 기회? / 31
- 가나, 아프리카 내 참치 시장 창출 주장 / 31

Contents

■ 오징어업 동향

- 포클랜드, 2022년 일렉스 허가 관련 권고사항 승인 / 32
- 포클랜드 일렉스 허가 확대 추진에 일부 선사 반발 / 32
- 포클랜드 신항 프로젝트 승인 / 33
- 세계 대왕오징어 어획량, 20% 감소한 80만톤 / 33

■ 명태어업 동향

- 2022년 명태 필렛, 4,000 달러 넘어설 수도 / 34
- 日 미국산 명태 연육 가격, 기록적 상승 / 34
- 러시아 명태 필렛블록 생산, 미국과 격차 좁힐 전망 / 35
- RFC, COFCO와 중국 명태 공급 계약 / 35
- 日 수산청, 명태 자원평가 결과 발표 / 36
- 日 태평양 명태 어군, 풍어 전망 / 37
- 중국 명태 소비수출, 대폭 감소 전망 / 37
- 명태 단백질, 간병 필요 고령자 근력 강화 효과 / 38
- 러시아, 수산자원 이용세 인상 발표 / 38
- GAPP, 명태 관련 자금지원 계획 발표 / 39
- 러시아 냉동 수산물 40주차 가격 / 39

■ 공치어업 동향

- 日 공치 어획, 여전히 적은 수준 / 40
- 日 11월 공치 내유량, '낮은 수준' 전망돼 / 40

■ 각국 수산 동향

- EU,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추진 / 41

- ICES, 2022년 북해 청어 TAC 증가 권고 / 41
- MSC 인증 수산물 판매, 사상 최고치 기록 / 42
- 서사하라(폴리사리오), EU에 직접 어업협상 초대 / 42
- 대구-해덕대구 H&G, 가격 유지 중 / 43
- 러시아 수입업체, 태평양 고등어로 눈 돌려 / 43
- 올해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 79억 파운드 / 44
- 코로나, 유럽인 참치수산물 구매 행동에 영향 / 44
- BlueNalu CEO "세포배양 수산물, 대량생산은 아직" / 45
- 美 법원, '존스법' 위반 벌금 집행정지 명령 / 45
- 대체수산물 생산 기업, 전세계 85개사 이상 / 46
- 글로벌 해운사, 컨테이너 운임 상한선 도입 / 46
- 美 2021년 1~3분기 수산물 소매 판매량 급증 / 47
- 중국-태평양 도서국, 12월 수산 정상회담 개최 / 47

■ 쉬어가는 난 (시)

- 바닷가에서 <오세영> / 48

■ 국내 수산 뉴스

- 참치·오징어 등 원양산 수산물, 수출에 날개를 달다! / 49
-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 50
-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 50
- 선선한 가을바람, 제철 수산물과 함께 즐기세요! / 51
- 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 51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 / 52
- 부산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강준석 씨 임명 / 52

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권고에 담긴 사례, 사실과 다르거나 과거의 일
올해 '개선 이행방안' 시행 이후 3차례 노사정 합동점검에서 이상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인권위가 실시한 2020년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리 협회에서 권고안에 명시된 원양 관련 인권침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과거 시점으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개선된 사항들이었다.

사실과 다른 사례는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선원과 다르게 바닷물을 여과한 물을 식수로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부분이다.

해당 사례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를 재발표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설문조사가 발표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외국인 선원만 바닷물을 여과한 물을 식수, 목욕, 빨래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원양업계는 선박 내 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수기 및 정수기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기 고장 등을 대비해 각 선박별 비상 생수를 구비하고 있다.

사례 중 현재 개선된 부분은 △(송출비용)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 부담으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 △(휴식시간)원양어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평균 14시간 30분으로, 11명은 18시간에서 19시간까지 일을 한 것으로

응답 등 2건이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이행방안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양업계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원양협회가 실시한 3차례 노사정 합동 점검('21.2.22, 4.30, 8.26) 결과 인권위 지적 사례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송출비용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송출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 송출업체의 송출비용 부과 여부를 외국인선원 승선 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정한 송출회사 적발 시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휴식시간은 ILO 어선원노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휴식시간(1일 10시간, 1주 77시간 이상) 보장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 모든 선박은 근무(휴식)시간 관리대장에 1일 근무(휴식)시간 체크 및 본인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인권위 권고 중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 별도 적용 개선'도 있는데 국내 비거주 선원의 경우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원양 어선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 조업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ITF/ILO 기준을 준용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우리 업계 조사 결과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도 ITF/ILO 기준에 준해 외국인 선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다.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 강화되는 어선 안전 및 선원복지 기준 준수 위해 해외 전문가 초빙, 점검 실시 2022 어기 PSC 대비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영국령 포클랜드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가 2022년 어기의 안정적인 입어를 위해 영국 및 포클랜드 전문가들을 초빙, 선제적인 점검에 나섰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영국 컨설턴트 및 포클랜드 현지 대방사인 드라곤사 관계자들과 ‘포클랜드 현지 대방사와 오징어채낚기 업계 간 2022 어기 PSC 대비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어선 5척(신조선 2척, 현존선 3척)을 방문해 어선 안전, 선원복지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에 초빙한 전문가는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에서 인증한 검사관 자격을 갖춘 선박 안전점검/선원복지 컨설턴트인 마린 컨설턴트사의 나이젤 블레이즈비, 위치폴사의 로버트 그린우드와 드라곤사 대표 캐롤린 웬디 셔번, 안전교관 리암 셔번이다.

포클랜드는 지난해부터 영국 규정을 준용해 포클랜드 관할 ‘외국어선 검사 매뉴얼’을 개정, 항만국 검색(PSC)을 실시했다. 포클랜드의 해당 매뉴얼은 영국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선이 활동하는 수역 중 어선 안전 및 선원복지 규정이 가장 까다롭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점검 결과 신조선의 경우 최상 위급이며 현존선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안전 및 선원복지 관련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2022년 어기 입어 허가 할당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드라곤사 셔번 대표는 선령, 사고이력, 선주·선장 이력, 대방사 이력, 안전기준, 경제적 기여를 점

수화해 허가 제한 척수에 맞춰 상위 선박에게만 허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원양산업협회 진호정 부장은 『원양어선은 어선 안전과 선원 복지에 관해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입어국, 지역수산기구, 국제협정, 국내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해외 소매 대기업의 요구도 수용해야 된다』며 『우리의 안전 및 선원복지 강화 노력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신조 어선 취득세 감면

2.02 → 1.01%

우리 원양업계가 지난 6월 10일 개최된 '2021년 소통릴레이 원양업계 간담회'에서 요구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및 회사 자체 신조어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로서 안전펀드로 어선을 건조한 아그네스수산과 승진수산은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의 절반을 최종 환급(2척, 약 2.4억원 환급) 받는다.

원양선사가 조업을 목적으로 원양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1.0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기본 취득세는 2.02%이지만 절반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펀드로 지어지는 선박의 경우 선박투자회사 소유의 어선을 원양선사에 용선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간 과세 관청에서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왔다.

지난해 11월 취항한 두 척의 원양 오징어채낚기 선박 취득세는 2.02%로 이를 이미 부산시에 납부했고 올해 건조 완료되는 선박 3척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이후 행정안전부, 부산시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해석상 이견을 제시하고, 명확한 해석을 요청·협의했다.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안전펀드로 건조한 원양선박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협회,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생산 및 수출 등 다양한 원양산업 통계자료 수록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 각 부문의 실적을 총망라한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2020년도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원양산업의 어선, 선원, 생산, 수출, 어가, 경영체 추이 등 주요 통계가 수록되었다.

이와 함께 원양산업의 역할, 원양어업 어장도, 국가별 해외합작 원양산업 진출 현황도, 국제수산물기구 해역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담았다.

또한,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 및 수출입 동향, 주요국 및 수산지역기구 수산통계 등 참고자료도 수록했다.

해외수산협력센터, PNG·태평양 도서국 투자 설명회 개최

국내외 저명 연사 강의, 진출 정보 및 네트워킹 지원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9월 30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해외 수산분야 투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7회 해외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의 PNG 등 태평양 도서국 수산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해당기업 투자 희망기업, 원양업체 등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해 총 35명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수산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과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PNA의 투자와 개발 기회 (Maurice Brownjohn PNA office 커머셜 매니저)’, ‘PNG 어업개요 및 진출 가이드(Wayne Osterberg KPMG 파푸아뉴기니 디렉터)’, ‘파



푸아뉴기니의 중국 진출 현황(Graeme Smith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해외투자진출 시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백웅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국제해양질서와 대양진출 - 남태평양 도서국 진출 전략(권문상 (사)적도해양포럼 박사)’이 발표되었으며 발표 후에는 강의자와 청강자 간의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되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협회 코로나19 대응지침 수립 및 시행
 - 코로나19관련 협회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시 지침 등
-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제외, 현황조사표 미제출
 - * 해수부 원양산업과에서 대상 제외 통보 받음
- 미사용 법정연차 휴가 사용촉진 촉구 안내
 -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말 3개월전 사용 서면 촉구
- 2021. 제15회 세계해양포럼(10.26 ~ 28/ 롯데호텔 부산 3층) 참석자 검토
 - 불참 통보
 - * 주최 : 해수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주관 : KAMI
- '21. 9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 및 납부(서초세무서)

기획홍보부

- 원양어선 조업선진화를 위한 기획연구 중간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1.9.14,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수행기관), 원양산업과장 외 2명, 원양업계 등 / 협회 기획홍보부 이사 외 1명
 - 내용 : 동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 수렴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온라인 토론회 참석
 - 일시/장소 : '21.10.8,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탄소중립위원회, 산업계, 노동계, NGO, 청년, 종교계, 관계부처 등 / 협회 기획홍보부 과장
 - 내용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 발표 및 토론 등
- '21.10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1.10.6 / 서면결의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5척 72.6억원 원안의결
 - * 9월말 기준 16개사 643억원 대출(34% 소진)
- 보도자료 작성·홍보, SNS 게시
- 가. 협회,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9.24, 수산전문지)
 - 어민신문(10.4, 5면), 수산인신문(10.4, 6면), 한국수산신문(10.4, 12면)
- 나. 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10.1, 부산일간지, 수산전문지, 인권위 보도자료 보도 언론사)
 - * KBS 뉴스(10.2)에서 '원양산업협회는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급
- 다.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 강화되는 어선 안전 및 선원복지 기준 준수 위해 해외 전문가 초빙, 점검 실시(10.7, 부산일간지, 수산전문지)
 - 국제신문(10.7, 12면), 한국수산경제(10.11, 2면), 수산인신문(10.11, 3면), 수산신문(10.11, 5면), 어민신문(10.11, 5면)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23호 9.15, 124호 9.29, 125호 10.6/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23호 정보 16건(日 수입 냉동 참다랑어 공급 전망 어두워/ 오만, 신규 참치 가공공장 신설 추진 / 러시아 PCA, 명태 어업 MSC 인증 취득)
- 제124호 정보 29건(EU 육류세 부과 움직임, 지속가능 참치에 기회? / 러시아, 수산자원 이용세 인상 발표/ 日 콩치 어획, 여전히 적은 수준)
- 제125호 정보 14건(방콕 가다랑어 \$1,300 아래로 하락예상/ PNA, 항구 전재량 26% 증가/ JAFIC, 일본 근해 콩치 내유량 3차 예보)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관련 업무추진
- 2020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계획 수립 및 자료요청
- 기타
- 홈페이지 통계자료, 한국원양산업 현황 자료 수정
- 현대해양 창간 52주년 축하 송부(9.23)
- '21년 8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333,887	110
- 참 치	198,233	100
· 횡감용	22,663	92
· 통조림용	175,570	102
- 명 태	13,726	99
- 오징어	66,370	192
- 콩 치	2,490	183
- 기 타	53,068	93

회원지원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추진

가. 제4차 업계 T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9.15,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업계 TF 위원, 연구용역기관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진행사항 및 연구용역 추진 방향 공유 등
- 나. 중대재해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1.9.30, 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연구용역수행기관, 업계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연구용역 수행 계획·내용 발표 및 업계 의견 수렴 등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고용노동부/10.7)

- 산업법시행령 상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자에 원산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원법에따른 의료관리자 포함건의

○ 선원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TF 킷오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9.16, 14:00 /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해수부, 원양노조, 업계 등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원양어선 선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 스마트 전자조업보고 앱 설치 및 사용법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9.16,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조업감시센터, 개발업체, 업계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앱 설치·사용·요령 설명 및 의견청취 등

○ 2021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조인식 개최

- 일시/장소 : '21.9.17,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노·사 교섭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1년도 임금협정서 체결

- 2021년 제2차 선원복지 실무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9.28, 14:00 / 수협중앙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노조단체, 선주단체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관련 협의
- 제446차 선급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9.30 / 서면회의
 - 참석자 : 선급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1년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탈급 선박 심의/보고 등
- 선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관련 업무추진
- 가. 국제항해종사 선원 예방접종 관련 업무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9.30,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운협회 등 유관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국제항해종사 선원 예방접종 계획 등
- 나.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해수부)
 - 1차 접종(504명) / 2차 접종(288명) (10.8 기준)
- 다. 국제항해종사자 백신접종 안내(회원사/9.30)
- 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이행 노사정 합동점검관련 업무
- 가. 참치연승업종 외국인선원 하선 희망수요조사 이행방안 공유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1, 10:30 / 영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업계 / 회원지원부장, 사원
 - 내용 : 하선수요조사 관련 업계 이행방안 공유 및 의견 교환 등
- 나. 참치연승업종 외국인선원 하선 희망수요조사 결과 제출요청(회원사/9.29)
 - 10개월 이상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 대상 수요조사
- 다.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철저 이행 당부(회원사/10.1)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회원사/9.13)
 - 기존 의료관계법령 상의 의약품 비치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제정
- 수산식품 수출업체 간담회 후속조치 알림 (선망출어사/9.15)
 - 해수부, 태국정부에 태국환적 EU수출 횡다량어 EU증명서 발급 요청 예정
-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과정 개설 알림 (회원사/9.16)
 - 21년도 교육일정 등 안내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원양노조/9.29)
 - 21년도 신규 장학생 추천 요청
- 케이프타운협정 설명회 일정 알림(회원사/10.5)
 - 원양업계 대상 대면 설명회 ('21.10.14-15, 서울, 부산)
 - 설명회 후 전 원양업계 대상 공청회 개최 예정 (11월중)
- 2021년도 EU 수출 위생점검 대상 선박의 국내입항 계획 조사(해당선사/10.5)
 - 수품원, 국내입항이 불가능한 선박에 한하여 비대면(서류) 위생점검 검토
- 주부식비 효율적 관리를 위한 TF 업무추진
 - 2021년 임금협정 후속사항으로, 주부식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TF 구성원 추천요청(노사위원장, 원양노조/ 10.8)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여수, 통영, 부산검역소/9.13, 9.16, 9.28, 9.29, 9.30, 10.5, 10.7)
 - 14명(한국 8명, 인도네시아 5명, 필리핀 1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해수부/9.17)
 - 5개사 6척 32명(내국인 전원) PCR검사 확인
- 출항 전 타인 접촉이 가능한 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폐소 불가 안내(회원사/9.13)
-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관리 이행 철저 요청(회원사/9.15)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10월) 안내(회원사/9.23)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회원사/9.23)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개정 안내(회원사/9.24)
- 국제항해종사자(내국인 30세 이상) 백신접종 안내(회원사/9.30)
- 외국인선원 중도폐소 시 출국관리 강화방안 준수 철저 요청(회원사/10.1)
-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 조정사항 안내(회원사/10.1)
- 해적관련 업무추진
 - 2021년 9-10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회원사/9.23)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공격 예상 정보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9.24)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9.28)
 - 남아메리카 페루 해적사건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0.1)
 - 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알림(회원사/10.8)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2022어기 한-솔로몬 입어협상 개최
 - 일시/방식 : 21.9.13, 10: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솔로몬) 수산부 장관, 차관, 국장 등 (우리나라) 참치선망출어사 / 해외협력1부
 - 내용 : 2022어기 솔로몬 수역 입어조건, 선박의무 검사, 선원 백신접종 등 협의
- 제2차 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참석
 - 기간/방식 : ' 21.9.13-15,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일본, 노르웨이 등 패널2 회원국 / 해외협력1부 주임
 - 내용 : 대서양 참다랑어 보존조치 문구 명확화, 참다랑어 전배 조항 추후 연례회의에서 재논의
- 2022어기 한-PNG 입어협상 개최
 - 일자/장소 : ' 21.9.23-24 / 화상회의
 - 참석자 : (PNG) 수산청장, 법률 자문 등 (우리나라) 참치선망출어사 / 해외협력1부
 - 내용 : 2022어기 PNG 수역 입어조건, 해상 선원 전선 가능 여부 확인 등
- 제17차 WCPFC TCC(기술이행위원회) 참석
 - 기간/방식 : ' 21.9.22-28, 8:00(일요일 휴회) ' 21.9.27,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EU, FFA, PNA 등 WCPFC 회원국 / 협력1부 과장 외 1명
 - 내용 : 2020년도 보존조치 이행평가, COVID19 임시조치로 발생하는 이행사항, WCPFC IUU 선박 목록 등 논의

- 원양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일시/방식 : ' 21.9.29, 13: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관리원 원양자원과, 수산공학과, KMI, 연승저연승트롤 업체 / 해외협력1부 과장 외 1명
 - 결과 : 업종 별 혼획저감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업체 추가 검토 후 검토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하기로 함.
- 제2차 CCSBT 기술이행 작업반 회의 및 이행위원회 참석
 - 일시/방식 : 2021.10.4-8, 14: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CCSBT 회원국 / 협력1부
 - 내용 : eCDS(전자어획문서제도) 및 국별 이행사항 검토
- 2021 글로벌 EM 전문가 Web 세미나 참석
 - 일시/방식 : 2021.10.7, 09:00 / 대면 및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KMI, 시민환경연구소 / 협력1부 과장
 - 내용 : 타국 EM 도입 사례 확인 및 추후 국내 도입 방안 논의
- 제1차 BBNJ 포럼 참석
 - 일시/방식 : 2021.10.7, 13:30 / 화상회의
 - 참석자 : 국립수산물관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속가능위원회,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KMI / 해외협력본부장 외 1명
 - 내용 : BBNJ 정부간 회의 쟁점, 해양보호구역 지정 목적 및 사례 발표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연안국 등 입, 퇴역 보고 관리 철저 및 모니터링 강화 요청
 - 과학원 제작 해양포유류 포스터 수요 조사(전 업종)

- 지역수산물기구 어획할당량 소진실적 및 전배 현황 제출(해수부)
- CCSBT 남방참다랑어 8월 어획실적 및 10월 양륙계획 제출
- 2021년 8월 WCPFC 눈황다랑어 어획실적 확인(연승출어사)
- 국제수산물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PNG 백신 미접종 선원 벌금 부과 중단 및 선박 출항 요청
 - (배경) PNG 검역관이 백신 미접종 선원에 벌금 부과, 선원 백신 접종완료 후 출항 가능 통보
 - (요청내용) 입어협상 시 논의되지 않았고 별도 통보 없었으므로, PNG 백신 미접종 선원 벌금 부과 중단 및 선박 출항 요청
 - IATTC EM 시범사업 참여 여부 재조사(참치연승)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참치선망)

해외협력 2부

- 대 러시아 업무추진
 - 가. 러수역 조업 보고(9.21-9.30)제출(해수부, 주러한국대사관)

업종	어종	조업량	누계량	소진율(%)
명태 트롤	명태	1,262	18,065	63.61
	대구	-	2	4.60
	청어	1	64	25.70
대구 저연승	대구	149	2,545	50.90
	가오리	6	243	48.65
꽂치 봉수망	꽂치	-	-	-

- 나.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대비' 22년도 희망 쿼터량 및 입어로 제출(9.14 / 해수부)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대비 회의 자료 제출 요청(10.5 / 북양·대구·풍치위원회)
- 31차 한·러위가' 21.11월 개최 예정임에 회의자료 제출 요청
- 한성기업 준성호 허가장 변경(10.6 / 연해주수산청)
 - 선원수 변경으로 인한 허가장 변경
- 제31차 한·러위 대비 회의자료 제출(10.7/ 해수부)
- 러시아 모니터링센터 계좌 정보 변경 알림(10.7 / 북양·대구·풍치위원회)
- 다. 풍치붕수망 업무추진
 - 해인수산 CFMC 이용료 환급 요청(10.6 / CFMC)
 - '18.7.6일자 선박침몰에 따라 \$680 환급 요청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 가. 포클랜드대방사 관계자 초청관련 방역계획서 제출(9.15/ 해수부)
- 나. 포클랜드대방사 및 오징어채낚기 선주간 워크숍 및 간담회
 - 일시/장소 : '21.9.25~10.2/ 부산 항만 및 조선소, KR, Komsa, 코모도호텔
 - 참석자 : 드래곤社, 선박검사 컨설턴트, 오징어채 낚기업계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결과
 - 포클랜드 PSC대비 신조선 및 현존선선박 및 선원 안전점검 실시
 - 선박 안전 등 MSN1873 및 C188 이행에 관한 워크숍 개최
 - 2022어기 입어대비 준비사항 확인
- 다. 포클랜드대방사 방한 관계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10.1 / 해수부)
- 라. 2021년도 정부비축 냉동오징어(원양산) 구매입찰 실시 안내(10.5 / 오징어위원회)
 - M/L사이즈 구매 입찰(예상 140,000 pan)

- 마. 제5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10.7, 13:30 /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출어선사 / 해외협력2부장
 - 회의내용
 - 채낚기 선박검사 결과 및 포클랜드 대방사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대방사 제안사항 협의
- 바. 페루 항만 이용시 페루정부가 지정한 VMS 장비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전선박 VMS 장비 설치 현황 제출 요청(10.5 / 전회원사)
- 원양어선 항해시 연안국 등 입·퇴역 보고 관리 철저 및 모니터링 강화 요청(9.24 / 북양·대구·풍치·오징어·남빙양위원회)
 - 러시아, 포클랜드, RFMO 입퇴역 규정 알림
- 국제수산물기구(RFMO)별 보존조치 준수 대응
- 가. 제9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과학위원회 참석자 명단 제출(9.17 / 수과원)
- 나. '제인7호' SPRFMO 원양어업허가증 허가기간 갱신 요청(10.6 / 해수부)
- 다. 제42차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AFO) 연례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1.9.20~24, 20:00/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협력센터 / 해외협력2부 주임
 - 회의결과
 - 3M수역 대구 쿼터 4,000톤으로 합의
 - 3M수역 새우 쿼터는 모라토리움 선언하기로 합의
 - 차기 연례위는 포르투갈에서 개최기로 합의
- 라. CCAMLR WG-FSA 참석
 - 일시/장소 : '21.9.13~20, 16:00/ 영상회의
 - 참석자 : 수과원, 남빙양위원회사 / 해외협력2부 주임
 - 회의내용
 - 이빨고기 어획한도 권고량 미합의됨
 - 어획한도량을 예비적 접근으로 만들기로 합의

마. CCAMLR 과학위원회 참석자 명단 제출

(10.6 / 수과원)

바. CCAMLR 이행위원회 및 연례회의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8, 13:30/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품원, FMC, 수과원, 외교부, 남빙양위원장 / 해외협력2부장 외 1명
- 회의내용
 - 선박별 이행 지적사항 대응 및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 논의
 - 남극 MPA 정책연구 결과보고회 및 CCAMLR MPA 의제 대응 전략 논의

○ 미 MMPA(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관련 업무추진

- 공해 저충트를 혼획저감계획 결의 사항 수정 알림 (10.7 / 트롤위원장)
- 트롤어업의 금어기와 금어수역에 대한 근거 부재로 인하여 삭제 필요함 알림
- 공해 저충트를 혼획저감계획 결의사항 수정 제출 (10.7 / 해수부)
- 공해 저연승 혼획저감장치 장착계획 알림 (10.7 / 해수부)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100개사 647건(9.1~9.30) 계량

○ 부산수산정책포럼 참석

- 일시/장소 : '21.10.6, 14:00/ 부산 벡스코
- 참석자 : 협회장, 부산지부 이사, 부산시 산학관계자 100여명
- 내용 : 부산 도시어촌의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

○ 어촌 뉴딜관련 현장 방문

- 일시/장소 : '21.9.16, 14:00/ 부산 청사포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장, 사무관, 해외협력본부장, 부산지부 이사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1개사 2척(참치연승2)
- 출항 : 4개사 5척(참치선망1, 참치연승4)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가. ICCAT 패널1 제2차 회기간 회의

- 일시/장소 : ' 21.9.1~3.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나일강 주무관, 원협, 업계,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22년 눈다랑어 TAC 및 할당기준 논의
- 나. SPRFMO 회기간 항구 검색 작업반 회의 (WG-PI) 참석

- 일시/장소 : '21.9.7~9 / 영상회의
- 참석자: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 내용: CMM 07-2021 내용 검토 및 논의

다. 국제포경위원회(IWC) 특별회의

- 일시/장소 : ' 21.9.8~10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위원회 예산, 분담금 미납과 투표권 정지 면제, 소위원회 작업 경과 등 논의

라. ICCAT 패널2 제2차 회기간 회의

- 일시/장소: ' 21.9.13~15.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나일강 주무관, 원양협회,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동부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참다랑어 MSE 경과 등 논의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원양산업뉴스 5건 업로드
- E-NewsLetter 8월호 발송

○ 명예해양수산물 위촉대상자 추천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9.15/ 영상회의
- 참석자: 해양수산부 조경래사무관, 원양산업협회 신현애 상무, 김효상 과장, 코삭교역정진욱 이사,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팀장, 서규혁 행정관

-내용: 임기만료 명예해양수산물 2인(인도네시아 이재완·사모아 오시영) 대상자 재위촉 추천 의결

○ 제7회 해외수산물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1.9.30/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영상회의 병행)
- 참석자: 해양수산부 조경래 사무관, 업체, 발표자 5명,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 팀장 등

-내용: PNA의 투자와 개발 기회, PNG 어업개요 및 진출 가이드, PNG 중국 진출 현황, 해외투자진출 시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 신국제해양질서와 대양진출-남태평양 도서국 진출 전략 등 발표, 질의·응답

○ 키리바시 어시장 설비 제작 및 구매현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09.01, 13:00/ Zoom 영상회의

- 참석자 : MFMRD Mr. Tekanene(Senior Planing Officer), 애니아이스 정규영 대표,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어시장 설비 제작 및 구매현황 발표, 관련 질의응답, 차기 ODA사업 아이템 논의

○ 실태조사 용역(뉴질랜드) 최종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1.9.2, 14:00 / 협력센터
- 참석자: 해수부 원산과 서민혜 사무관, 김영민 사무관, 조현주 주무관, 서범석 주무관, 해외수산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 팀장, 윤유정 행정관,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수해기관)
- 내용: 원양산업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





꽁치 간장조림 김밥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꽁치 300g 1캔, 김밥김 2장, 참기름 10g, 밥 800g, 소금 3g, 청상추 6장, 깻잎 6장, 참깨 5g, 생와사비 10g,

<소스>

진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설탕 2큰술, 생강 1쪽, 생수 1컵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꽁치와 국물을 분리해 준비한다.

- ② 준비된 재료로 소스를 만들고 소스와 꽁치를 넣어 윤기가 나도록 중,약불로 졸여준다.

- ③ 꽁치가 물기 없이 졸여지면 접시에 담아 식혀준다.

- ④ 밥에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한다.

- ⑤ 김밥을 준비하고 김→현미밥→상추 3장→꽁치 간장조림→생와사비→참깨 순으로 넣어 동그랗게 말아준다.

Tip: 꽁치 조림은 국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농도로 졸인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9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유럽 산업형 어업이 서아 프리카 해역을 어떻게 망 가뜨리나(기사)

- 유럽의 산업형 어업은 지역 어부들의 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 세네갈 어업인들의 목소리는 유럽 공동 어업 정책의 개혁에 대한 현재의 논쟁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068
	1.8kg	1,025
	1.5kg	897
황다랑어	10kg	2,136
	3.4kg	1,111
	1.8kg	1,025
눈다랑어	10kg	1,068
	3.4kg	1,068
	1.8kg	1,025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475 유로/MT	경유	'21.9.24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성인들의 2차 접종 완료인원이 80프로를 넘어가는 상황으로 현재는 청소년(15-17세)들을 상대로 모더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 통행금지 시작 시간이 기존의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로 늦춰졌으며, 피지정부는 곧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모든 가게 및 사회시설의 오픈 및 각종 모임개최를 허용했다.
- 단, 이 허용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만 해당되며 가게 이용객 및 시설이용자는 백신접종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 모든 장소의 수용인원은 정원의 70퍼센트 내에서만 가능하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2,95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11달러/MT	M.G.O	'21.10.8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5톤 정도이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없다.
- 10월 하와이언 항공이 예정된 스케줄이 10.25를 11.1, 11.18로 변경했다.
- 외국인 및 자국민이 입국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우선 탑승 21일 전 'Talofa Pass'라는 웹사이트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10일 전 5일 전 48시간 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하와이에서 5일간 체류하며 코로나 검사 2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와이 체류 중 검사비 1회 140달러).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47(gallon)	'21.10.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

가. 뉴질랜드 IT 기업 SnapIT, 캐나다의 수산 감시 기업인 Teem Fish 인수

- 뉴질랜드의 일차산업부는 2024년까지 카메라를 연안배 345척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세계 최다 카메라 설치가 될 것이고,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SnapIT의 대표 Chris Rodley는 전했다.
- SnapIT는 선박에서 불법으로 생선을 처분하는 행위를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인지하고 보고하여 소중한 자원이 불법적으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LING	2L	3,950	Sea Jho Co.Ltd
	L	3,550	
	M	3,150	
	2M	2,850	
	S	2,750	
SQUID	3L	3,650	
	2L	3,650	
	L	3,250	
	M	3,25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Z	MGO \$947/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10.5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해상 경계: 해적을 쫓는 해양 감시단 MMCC

- ECOWAS 의 Multinational Maritime Coordination Centre (MMCC) F 구역의 작전 국장 대행인 Yussif Benning 사령관은 MMCC 경계로 기니만에서 해적들로 의심되는 16척 이상 선박들의 활동을 위협해 쫓아버렸다고 말했다.
- 수도 Accra Osu성에 위치한 MMCC Zone F는 가나,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의 바다를 감시한다.
- Benning 사령관은 기니만 지역의 선박과 대응 기관 간의 정보 교환과 조정 중대를 통해서만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700	
	10kg 하	1,360	
가다랑어	3.4kg 상	1,275	
	1.8kg 상	1,225	
	1.5kg 상	1,075	
	1.5kg 하	925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650달러/kl	M.G.O	'21.9.30	
항만급유	630달러/kl	M.G.O	'21.9.30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

가. 페루, 외국적 대왕오징어 선단 감시

- 9월 4일, 페루 항만국-해안 경비대는 해상 비행을 통해 외국적 대왕 오징어 선단에 대해 감시한 결과, 페루 해안에서 약 260해리 외곽에 선단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나. AP통신, UNIVISION, 환경단체 SEA SHEPHERD와 중국 어선 활동 관찰

- AP통신과 스페인 TV 네트워크 UNIVISION은 환경단체 SEA SHEPHERD와 공동으로 남미 연안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활동을 처음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AP가 세밀히 관찰한 40척 중 24척은 선원들의 노동 착취 혐의를 받았거나 해양법 위반 징후를 보였다. 16척은 위치발신 장치를 OFF하고 선명/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AP는 이들이 불법 조업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4년간 공해 조업선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에 따르면, CHANG TAI 802를 포함한 강제노동 혐의로 기소된 회사소속 선박도 6척이나 있었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PETRO PERU	2.57 달러/갤론	MARINE DIESEL ULS	'21.9.28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선원·선박 문제 비상대책반 조직 논의

- 원양 선단이 입항하는 라바올과 본인이 거주하는 포트모스비간의 지역적 거리의 차이로, 수산청 문제 발생시에만 관여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 문제로 인한 제약을 고려할 시 비상대책반을 대사와관 상의하여 조직할 예정이다.
- 비상대책반 설립될 시 현지 수산청 및 기타 관련 부처담당자와 대사관이 연결되어, 비상시 더 효율적인 선원 보호 및 선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Dogleg Fishing Ground에 신규 허가

- PNG 정부는 2016년 이래 본인 회사에서만 조업을 해오던 Dogleg Fishing Ground에 새로이 9척의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했다.
- 현재 대만(혹은 중국) 자금의 한 회사가 3척, 태국에서 투자한 한 회사가 3척의 허가를 취득했다.
- 동 어장에 입어하기 위해서는 100% PNG 어선이어야 하며, 어획된 물량을 Port Moresby에서 하역 및 가공 등을 거쳐 수출이 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 상기 어장은 좋은 어종은 많지 않지만 1년 중 2~4개월에 걸친 한치잡이 시즌이 있고 가오리, 적돔 및 다량의 잡어가 조업되는 지역이다.
- 2000년대 초에 입어료를 내고 외국 어선이 조업했으나, 2015년도에 IUU 문제로 더 이상 외국 어선의 접근을 금지해왔다. PNG 국적 어선 CAPS No.1(이전 STD No.1 : 한국 국적선)호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조업해왔다.

- 그동안 대만 및 태국 어선들의 입어 움직임이 많았지만, 이번에 결국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다. 바닷가재 규제 강화, 접근 적기

- 중국·호주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호주산 바닷가재의 대 중국 수출이 막혀 현재 PNG산이 3국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 또한, PNG 바닷가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많아지며 PNG 수산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 PNG에는 전 수역에 걸쳐서 바닷가재가 분포되어 있으나, 각종 인프라 부재로 인해 사업으로의 진행은 현재 한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 한국에서 바이어로서 PNG 바닷가재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가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이며, 남태평양 바닷가재를 한국에도 소개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기타
바닷가재	80달러/kg (1kg 초과)	10월 첫째주 수출 가격(태국)
바닷가재 (Ornatus Rock Lobster)	50달러/kg (600g~1kg)	10월 첫째주 수출 가격(태국)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75달러/리터	Diesel	'21.10.5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방콕 가다랑어, 1,300 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도

9~10월까지 관망세 예상돼...50~100 달러 하락 전망

방콕 냉동 가다랑어 가격은 8월 중순에 비해 약 200 달러 하락한 톤당 1,30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방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태이다. 현지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가다랑어 가격은 가공업자의 수요가 적어 8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하락했다.

FAD 금지 기간 동안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지난 수 년간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8월부터 9월까지 하락했다. 지난 9월 초 방콕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현물가격은 톤당 1,300 달러였다. 현재 일각에서는 톤당 1,280 달러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태국의 한 주요 가공업자에 따르면, 연말 판매용 대량주문은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공업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다.

선주들은 연료비 등 비용 문제로 인해 가다랑어 가격을 더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시에 중계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운반선을 방콕에 보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가격 하락 압박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향후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50~100 달러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이미 연말까지 재고를 확보한 가공업자도 있기 때문에, 9~10월까지 관망 분위기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9월 21일자, Atuna, 2021년 9월 30일자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최저치 기록

가다랑어 어획 감소, 황다랑어 어획 증가

PNA 자료에 따르면 8월 참치 선망어업 어획량은 11만 2,820톤으로 7월 대비 13% 증가했다. WCPO FAD 금지기간 2개월째인 8월 중 전반적인 선망선 조업일수와 VDS 사용량은 감소했다.

총 어획량은 증가했지만 가다랑어 어획량이 2020년 4월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참치 어종별 점유율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체 참치 어획량(7만 875톤)의 약 63%를 차지했다. 가다랑어가 평소 차지한 비중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가다랑어 1일 어획량 또한 2020년 1월 이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7월 대비 약 25% 감소한 수치이다. 가다랑어는 대부분 FAD로 어획되기 때문에, FAD 금지기

간인 8월에 적은 어획량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약 2톤에서 8톤으로 증가했다. 황다랑어 어획량이 2021년 대부분 낮은 어획량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이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8월 황다랑어 어획량은 총 4만 1,176톤이며, 이 중 9kg 이상 개체는 1만 1,740톤이다.

대부분의 어업은 키리바시 등 PNA 동부에서 이루어졌다. 월별 어획량 증가를 기록한 다른 지역은 마셜제도,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등이다. 한편, PNG와 솔로몬제도 등 PNA 서부 지역은 낮은 어획량을 기록했다. 8월 공해 어획량 또한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1일자



WCPFC 과학위, 날개다랑어 어획 감축 제안

날개다랑어 개체 감소 우려

WCPFC 과학위원회(8월 11~19일) 결과가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이후, WCPFC 관할 날개다랑어 산란 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과학위원회에서 날개다랑어 자원은 아직 남획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위원회는 WCPFC 회원들에게 장기적 어획량 감축을 권고했다. 과학자들 또한 『2000년 이후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의 어획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성체 사망률이 장기적으로 증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날개다랑어 산란 가능성 및 총 자원량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는 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서 발생했다.

2020년 연승어업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6만 4,963톤으로 총 어획량의 93%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대비 21% 감소한 수치이다. WCPFC 남부지역 한정

날개다랑어 총 어획량은 6만 1,778톤이며 이 중 연승 어획량은 5만 7,006톤이다. 해당 지역 날개다랑어 어업의 상당수는 MSC 인증을 받았다.

과학위원회는 WCPFC 중간 목표 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 TRP) 재설정을 비롯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다만 태평양수산위원회(FFA) 부국장 Matthew Hooper는 날개다랑어 개체수가 여러 요인에 매우 민감한, 유동성 강한 종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ooper는 또한 어선의 조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이며, 관련 국가의 강경한 사전 관리 조치를 통해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날개다랑어 자원 건전성 및 관리 관련 사안은 11월 예정된 WCPFC 정기총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16일자

PNA 항구 전재량, 지난해 대비 26% 증가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순

PNA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PNA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6만 1,176톤으로 7월 4만 8,548톤 대비 26% 증가했다. 2020년 8월보다 2만톤 증가했으며 2019년보다도 많은 양이다.

전재량은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순이다.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EEZ 및 인근 공해에서 어획량이 많았으며 전재량은 어획량 추세를 따랐다.

마셜제도 마주로항 전재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 3개월 동안 2만 5,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항구에서의 8월 전재량은 전월 대비 6,000톤 증가하며 지난해 8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4일자



日, 상반기 냉동 참치 수입량, 지난 5년간 최저 가다랑어 수입량 감소폭 최대

일본의 2021년 상반기 냉동 참치 수입량은 5만 7,721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수입량인 6만 6,481톤과 비교해도 적은 수치로, 지난 수년간 최저치이다. 반면 톤당 평균 가격은 4,508 달러로 지난해 대비 17% 상승했다.

가다랑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예외적으로 많은 수입량을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수입량은 58%나 감소했다. 가다랑어는 참치 5종 중 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참치 수입 평균가 상승의 주된 이유는 가다랑어 수입량 급감인 것으로 추측된다.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등 고가 어종 또한 수입량이 감소했다. 눈다랑어는 전체 수입량의 40%를 차지하며 일본 참치 수입 최고 인기 어종의 자리를 유지했다. 날개다랑어 수입량은 23% 증가로, 참치 5종 중

유일하게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톤당 평균 가격이 하락했다. 참다랑어 수입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했다. 참다랑어 톤당 평균 단가는 지난해 대비 1,500 달러 가까이 하락했다.

일본 참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출국은 대만이지만, 이들의 대(對)일본 수출량은 크게 감소했다. 가장 큰 대일본 수출 손실을 기록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이들의 대일본 수출량은 1만 7,401톤에서 5,911톤으로 급감했다. 가다랑어 수출량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 세이셸, 마이크로네시아 등의 대일본 수출도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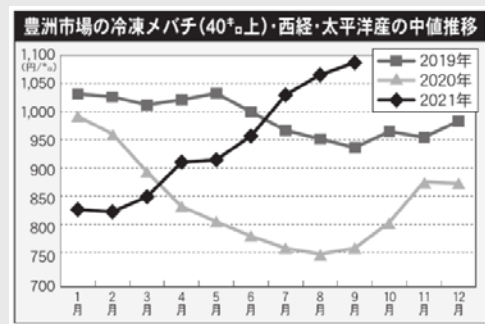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일본 수출량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바누아투도 다소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5일자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중간가격, 1,100엔 근접 상장 마릿수 감소로 인해 가격 상승 지속

일본 도요스시장 9월 냉동 눈다랑어(40kg 이상) 상장 수량은 8,564마리로, 지난해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 추세이다.

냉동 눈다랑어 9월 가격은 고가 3,000엔(지난해 동월 대비 7% 상승), 중간가 1,087엔(42% 상승), 저가 900엔(96% 상승)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월 말이 되자 하급품도 950엔 이하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저가 약 970엔, 중간가가 약 1,150엔까지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5일자



日 재무성, 1~8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냉동 수입량 14% 증가, 수입 금액 48% 증가

2021년 1~8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날개 다랑 어	한국	37	-	53	35	113	27	45	49	359
	대만	355	-	130	688	-	64	335	1307	2879
	바누아투	721	4	185	894	242	6	-	2	2054
	기타	81	6	21	52	9	36	290	938	1433
	소계	1194	10	389	1670	428	70	670	2295	6726
황다 랑어	한국	266	318	309	380	458	412	410	455	3008
	중국	321	205	655	253	326	254	451	770	3235
	대만	844	1211	1531	1702	1304	1102	1535	1143	10372
	필리핀	-	19	150	198	171	204	114	22	878
	인도네시아	-	21	33	7	15	-	-	-	76
	미국	-	17	-	12	-	31	3	-	63
	바누아투	128	106	114	211	129	124	283	178	1273
	피지	11	27	17	112	31	48	27	13	286
	키리바시	43	33	32	31	202	291	248	58	938
	마셜제도	104	-	54	-	25	-	257	189	629
	기타	1286	1440	1236	569	625	1003	969	529	7657
	소계	3003	3397	4130	3477	3286	3469	4296	3357	28415
눈다 랑어	한국	85	32	308	158	168	296	352	110	1509
	중국	587	271	1125	573	327	549	918	1216	5566
	대만	1509	2427	2661	2627	1909	1487	2606	1903	17129
	세이셸	469	1123	826	376	460	292	460	150	4156
	바누아투	156	319	510	576	328	55	48	117	2109
	기타	145	63	59	99	22	95	113	63	659
	소계	2951	4236	5489	4409	3212	2774	4496	3560	31127
남방 참다 랑어	한국	354	-	-	-	-	40	-	-	394
	대만	56	32	50	23	2	5	1	24	193
	호주	-	-	-	-	-	-	715	1900	2615
	소계	410	32	50	23	2	45	716	1924	3202

※ 신선·냉장·필렛, 2020년, 참다랑어(태평양, 대서양) 수치 필요 시 문의 요망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0월 7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192 달러로 하락

비용 상승 우려가 가격에 영향 미칠 가능성 존재

세이셸·모리셔스의 냉동 가다랑어 원어 톤당 가격이 하락했다. 세이셸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톤당 가격은 현재 1,020 유로(1,192 달러)로, 8월 말 가격인 1,150 유로(1,344 달러) 대비 11% 하락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어획량은 10월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이 이 수준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참치 조업 운영비용이 급등했고, 운임과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완제품 관련 부담도 적지 않다. 인도양 가공공장들은 인근 지역에 철강 제조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캔을 만들기 위해 컨테이너로 판금을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참치캔의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할지, 아니면 원료 가격을 낮춰야 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들은 향후 인도양에 MSC 인증 선단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재편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 시점에서 스쿨조업과 FAD 조업 모두 MSC 인

증을 보유한 어업 회사는 6척의 선망선을 보유한 스페인의 Echebastar사가 유일하다. 스페인 대형참치 냉동선생산자연합(OPAGAC)이 현재 진행 중인 MSC 인증 평가도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선주들에 따르면, 가다랑어 개체 크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랑어 자원의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올해 어획된 가다랑어 중 1.8~3.4kg 개체의 양은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3.4kg 이상 개체의 어획량은 약 50% 감소해 효율이 떨어지고 톤당 클리닝(가공공장에서 삶은 뒤 살 발라내는 과정) 비용은 증가했다.

황다랑어 유럽 수출량은 이번 달 들어 다소 감소했다. 세이셸 황다랑어 가격은 3% 하락한 2,000 유로(2,337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28일자

EU 육류세 부과 움직임, 지속가능 참치에 기회?

유럽 의회에서 그린딜 초안 통과

유럽 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10일 새로운 그린딜 첫 번째 초안을 승인했다. 초안에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에 부가가치세 '0'를 허용하고 오염 배출이 많은 식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디언지는 9월 13일 육류 생산이 식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의 60%를 차지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축산업의 높은 탄소 배출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올해 초 마케팅 리서치 업체인 DVJ Insights에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육류에 더 높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에 대한 압력으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가격이 높아지면 참치 산업은 지속가능한 부문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23일자



RFMO 등록 선망선, 소형 증가, 대형 감소

대형 선망선 신조 척수 감소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은 참치 관련 지역수 산기구의 정보를 기반으로 2021년 7월 기준 대형 참 치 선망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선망선 척수는 1,855척으 로 1년 만에 134척(8%) 증가했다. 증가한 선망선의 대부분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 치위원회(IOTC) 등록 어선으로 이전에 휴업 또는 조 업 불가 상태로 등록되어 있던 중소형 어선이다. ICCAT 신규 등록 선망선은 대부분 참다랑어 조업 어 선이다. IOTC 신규 등록 선망선 중 대부분은 인도네 시아 국적 소규모 어선이다.

선망선의 규모는 7.1~116m까지 다양했으며 22.5m대의 소형선이 가장 많다.

선망선 전체 척수는 증가했지만 대형 선망선 척수는 826척으로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대형 선망선

은 어창용적(fish-holding volume, FHV) 335m³ 이상으로 정의했다.

올해 7개월 동안 지역수산기구에서의 선망선 변동 사항은 삭제 62척, 신규 등록 44척이다. 신규 등록 44척 중 27척은 2012년 이후 건조되었다.

한편, 대형 선망선 신조는 올해 총 3척에 불과했다. 신조 척수는 2015년 이후 총 68척이며 지난해에는 10척이 신조되었다.

올해 신조된 3척의 국적은 각각 마이크로네시아, 스 페인, 프랑스이다.

2015년 이후 국가별 신조 척수는 대만·필리핀 7척, 중국·케냐·마이크로네시아 6척, 한국·파나마 5척 등 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21, 22, 24일자

타이유니온, 식품 풍미·색소·코팅 분야 전략적 투자

총 8,990만 달러 규모

타이유니온(Thai Union) 그룹은 풍미·색소·코팅 전문 식자재 기업인 R&B Food Supply에 8,990 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 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타이유니온과 R&B간의 다년간 관계에 따른 것이다. R&B는 타 이유니온에 고품질 식자재를 공급해왔다.

타이유니온 측은 천연 조미료, 대마(hemp) 추출

물과 같은 R&B의 식자재가 타이유니온의 핵심 제 품 및 신제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R&B의 입장에서, 이들의 협력 관계는 타이유니 온 공급망에 수직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 고, 타이 유니온의 국제적 영향력 향상에 힘을 싣 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20일자



지난 5년간 중서부태평양 dFAD 배치 약 10만 건

PNA FAD 추적 시험 프로그램 결과 발표

지난 9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과학 기술위원회에서 발표된 남태평양위원회(SPC)의 최신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동안 중서부태평양에 10만 건에 가까운 dFAD(부유형 FAD)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해당 데이터는 나우루협정당사국(PNA) FAD 추적 시험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된 자료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선망선의 dFAD 사용은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중서부태평양 참치 조업 시 세트의 대부분이 dFAD였다.

'16~'20년간 FAD 총 배치 숫자는 재배치 포함 총 9만 6,599건이었다.

대부분의 FAD는 지리적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는 '16~'20년 동안 총 6만

7,074개의 부표에서 3,210만 회 전송되었다.

FAD의 57%는 선망선에 의해 투입되었고, 4.6%는 운반선을 비롯한 기타 선박에 의해 투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5%의 FAD가 WCPFC 규정에 반하는 원격 작동이 가능하다.

FAD 배치의 상당수는 키리바시 길버트제도 남쪽과 피닉스제도 동쪽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동부, 솔로몬제도 해역, 투발루 북부, 나우루 해역 등 다른 구역에서도 많은 dFAD 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7~'19년 동안 키리바시 라인제도 중부에서 많은 배치가 이루어진 지역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피닉스제도 보호구역(PIPA) 내에서는 배치가 거의 탐지되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12일자

타이유니온, DNA로 참치 추적

종 및 어획 수역 확인

타이유니온은 식품사기를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추적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DNA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유니온의 혁신 이사인 Dr. Tunyawat Kasemsuwan은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정교한 DNA 바코딩(DNA 표지인자를

사용한 종 식별 방법) 및 단일염기 다형성 분석(개체 간의 유전자 서열 차이 기반)으로 어류의 종과 어획된 수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과 2025년까지 선박 모니터링 100% 달성을 통해 제품에 대한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16일자



중국 참치 가공 분야 성장 추세

참치캔 소비량 꾸준히 증가

Shandong Ocean International Co.의 Long Wang 상무는 제10회 World Tuna Conference에서 중국의 참치 가공 부문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 참치캔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가공용 냉동 가다랑어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참치캔 자국 소비 및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참치 수입은 EU로 재가공·수출되는 가다랑어 원어가 가장 많으며 참치캔, 냉동 가다랑어 스테이크가 뒤를 잇는다.

2020년 가다랑어 수입량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만 4,360톤이다. 올해 수입량은 6월까지 2만 9,019톤으로 2020년 수입량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가다랑어 및 가다랑어 가공품 수출은 2019~2021년 기준 약 71%가 통조림이었고, 냉동이 23%, 냉동 스테이크가 6.5%였다.

2020년 가다랑어 참치캔 수출량은 2019년 대비 10% 증가한 13만 6,256톤이다. 올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는 중국 참치캔 소비량이 2014년 이후 증가 중이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국산 소비 외에 외국산 참치캔 수입량도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참치캔 수입량은 7,320톤으로 2019년 4,293톤에 비해 71% 증가했다. Wang 본부장은 올해 수입이 2020년보다 낮지만 2019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인들은 건조하고 폭신한 질감의 참치캔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참치는 중국에서 볶음밥 재료, 국의 풍미 보충 용도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Wang 본부장은 온라인 판매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매일 참치캔 2,000개 이상, 정어리캔 2만개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John West Australia를 예로 들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9월 16일자, Atuna, 2021년 9월 22일자

프랑스 Sapmer사, 선망선 2척 매각 완료

1척 판매 중

프랑스 참치어업 회사인 Sapmer는 인도양에서 운영하는 선망선 2척을 매각했다.

매각된 선망선 2척은 세이셸 국적선으로 전장 79.5m, 총톤수 2,298톤이며 2014, 2015년에 건조되었다.

동 선박을 매입한 회사는 스페인 어업회사인 Pevasa이다. Pevasa사는 전장 75~87m 규모의 참치 선망선 6척을 보유하고 있다.

Sapmer사가 선망선을 매각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조업일 손실, 황다랑어 가격 하락, 수 년간 좋지 않은 황다랑어 자원 상태 등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Sapmer사는 프랑스 국적 선망선 1척(89.4m, 2,666톤)을 추가로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구매자는 없는 상태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1일자



이탈리아 인구 99%, 참치캔 섭취

전체 인구 중 1/3이 매주 2~3회 소비

이탈리아 전국 어류·참치보존협회(ANCIT)가 이탈리아 시장조사 기업인 Doxa 2021의 데이터에 근거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99%가 참치캔을 소비하고, 전체 인구 중 1/3은 참치캔을 일주일에 2~3회 소비한다.

이탈리아의 2020년 수산물 통조림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이며 이 중 약 14억 유로가 참치캔 부문이다. 참치캔 국내 생산량은 8만 300톤 이상이며, 1인당 소비량은 2.67kg으로 단연 최대 규모이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 인구 5,955만 명이 약 16만톤의 참치를 소비했음을 의미한다. 참치 1인당 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17.4%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탈리아의 참치캔

수출량은 122% 증가해 총 3만 500톤, 수출액 2억 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수출의 대부분은 독일·그리스·체코·슬로베니아 등 EU 국가로 이뤄지나, 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UAE·이스라엘 등 제3국으로도 수출된다.

ANCIT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2011년 대비 참치캔 분야의 이탈리아 전국 시장 가치는 31.3%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18%, 수입은 12.5% 증가했다.

그 외 이탈리아 시장의 수산물 통조림 분야로는 멸치, 고등어, 연어, 정어리가 있으며, 2020년 총 매출액은 4억 500만 유로이다.

* 기사출처: Atuna, 2021년 10월 12일자

영국 시장 판매 1위, 참치에서 다시 연어로

연어, 대구, 참치 순

영국의 수산전문기관인 Seafis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참치 판매량은 6만 6,631톤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대비 2.1% 감소했다.

참치는 지난해 참치캔 사재기로 인해 1위에 올랐지만 다시 연어가 1위를 차지했다. 상반기 판매액 기준 상위 10위는 연어, 대구, 참치, 온수성 새우, 해덕대구, 혼합 수산물, 명태, 냉수성 새우, 고등어, 농어이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판

매한 유통업체는 테스코이다. Sainsbury, Aldi, Lidl이 테스코와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Princes 그룹의 어류 부문 이사인 Neil Bohannon는 한 발표에서 영국에서 소매 업체들의 자사 브랜드 제품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ldi사가 바닥을 향해 경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의 주요 브랜드인 John West와 Princes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4일자



환경 NGO, 월마트에 지속가능 참치캔 공급 추진

지속가능성 유지 및 태평양 도서국 주민 이익환원 목표

미국에 본사를 둔 환경 NGO The Nature Conservancy(TNC)가 마셜제도 정부와 제휴해 미국 전역의 월마트 매장에 MSC 인증 지속가능 참치캔을 공급하는 Pacific Island Tuna (PI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비영리단체가 참치 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NC의 발표에 따르면 이 새로운 사업 모델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생산 모델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태평양 도서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 이들이 참치 자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월마트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 브랜드인

Great Value에 MSC 인증 가다랑어 참치캔을 추가할 예정이다. PIT에 따르면 이들은 공급망에서 동급 최고의 환경 및 노동 기준을 준수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TNC와 마셜제도 정부 간 협정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나온 순이익의 40%가 저지대 지역사회 기반 보존 및 기후 복원 프로젝트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 마셜제도는 저지대 도서국으로서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NC에 따르면 나머지 60%는 마셜제도 정부에 환원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Seafoodsource, 2021년 10월 7일자

EU 참치캔 시장 성장 여지 있어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Bolton Food Spain사의 Oscar Vicente 본부장이 제10회 World Tuna Confere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참치캔 산업의 총 가치는 2019년 기준 88억 5,000만 유로에 달하며 이 중 80%가 10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20.5%로 가장 큰 단일 시장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14.1%, 12%를 차지했다. 멕시코(7.3%), 프랑스(7%), 한국(4.9%), 영국(4.4%), 호주(3.4%), 독일(3.4%), 이집트(2.2%)가 그 뒤를 이었다.

참치캔 소비량은 104만톤으로 이 중 80%가 10개국에서 소비되었다. 미국(19.7%), 멕시코(12%),

스페인(11.6%), 이탈리아(10.7%), 프랑스(6.1%), 영국(4.5%), 호주(3.6%), 한국(3.6%), 독일(3.5%), 이집트(3.5%) 순이다.

Vicente 본부장에 따르면 EU 시장에서 참치캔의 판매량 및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성장의 여지가 있다.

그는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경우 생선 통조림 소비에 비해 참치캔 소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며 시장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7일자



아침식사, 참치캔 시장에 기회?

스페인에서 점심 저녁에 96.5% 소비

마케팅 리서치 기업 Kantar의 Alicia Garcia 월드 패널 부서 사용자 책임자인 Alicia Garcia는 제10회 World Tuna Conference에서 스페인 참치캔 시장을 재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참치캔은 96.5%가 점심 또는 저녁에 소비된다.

Garcia는 점심 및 저녁 참치 섭취를 강화하는 마케팅이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며 아침 식사가 참치 시장 성장을 위한 마케팅 강화 부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참치캔 부문 성장의 주요 과제는

즐거움이 식습관의 주요 동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치 소비에 있어 소비자들의 주요 동인은 실용성과 편리성으로 즐거움 제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Garcia는 피자, 바게트 등의 방식으로 맛을 즐기기 위해 참치를 섭취할 때 참치캔의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즐거움이 참치캔 부문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은 영역이지만, 참치캔의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20일자

가나, 아프리카 내 참치 시장 창출 주장

AfCFTA 통해 참치 시장 성장 필요성 강조

가나참치협회(GTA)에서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을 통해 아프리카 참치 시장을 창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Richster Nii Amarh Amarfio GTA 총장은 아프리카 내 참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참치 산업이 EU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Amarfio 총장은 EU 의존도를 낮추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핵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AfC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fCFTA는 아프리카 54개국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해당 경제 블록의 형성은 아프리카 내 무역을 52%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는 참치 식문화가 없으며, 특히 내륙 지역 국가는 더욱 그렇다. 아프리카 참치 시장의 대부분은 리비아, 이집트와 같은 연안 국가이다.

이로 인해 참치 시장 형성을 위해 먼저 참치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Amarfio 총장은 이를 위해 아프리카인의 입맛에 맞는 참치 요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8일자



포클랜드, 2022년 일렉스 허가 관련 권고사항 승인

천연자원부, 2023년부터 다년 단위 면허 희망

포클랜드 의회 최종 집행위원회의 선출 의원들은 2022년 일렉스오징어 어업 및 전채 면허 관련 권고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포클랜드 천연자원부는 일렉스오징어 허가 신청·검토·할당과 관련하여 2021년에 수립된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경쟁 촉진, 안전 및 사업 관행에 대한 표준 강화를 위해 전체 과정 및 기준에 대한 추가 개선을 제안했다.

일렉스오징어는 현재 ITQ 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포클랜드 정부 차원에서 확고한 일렉스오징어 자원 접근 통제 원칙이 마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추진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포클랜드 천연자원부는 2023년부터 일렉스오징어 어업 허가가 다년 단위로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com, 2021년 9월 27일자

포클랜드 일렉스 조업 허가 확대 추진에 일부 선사 반발

일렉스 오징어 조업 허가 10% 확대 등 정책 검토

포클랜드 제도 조업 선사들 사이에서 최근 포클랜드 정부의 허가 및 보안 조치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Penguin News가 보도했다.

아일랜드 주요 기업 중 하나인 Fortuna Ltd의 James Wallace 대표는 일렉스 오징어 조업 허가를 10% 늘리는 조치의 발표 시기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포클랜드 의회 최종 집행위원회의 선출 의원들은 최근 2022년 일렉스오징어 어업 및 전채 면허 관련 권고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권고안에는 2022년 허가 신청자 수 확대, 전채비 10% 인상, 일률 1,000 파운드의 신청비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클랜드 집행위원회 조사 위원 Roger Spink 의

원은 『이번 개선은 경쟁을 촉진하고 어선의 안전 기준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Wallace 대표는 『올해 어획량이 좋았지만 이전 5시즌의 어획량은 저조했으며 이 기간 동안 선주들은 항만국 검사 도입과 관련된 안전 개선 측면에 많은 투자를 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허가를 늘리고 허가 비용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극도로 가변적인 어업에 충실히 참여해온 외국 파트너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10월 4일자



포클랜드 신항 프로젝트 승인

상세 설계 추진

포클랜드 집행위원회(ExCo)는 지난 9월 10일 신항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13개월 동안의 1단계 B, 상세 설계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B가 마무리되면 신항 건설을 위한 최종 계획이 2022년 차기 입법부에 제출될 것이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9월 15일자



세계 대왕오징어 어획량, 20% 감소한 80만톤

일렉스오징어 60만톤으로 대폭 증가

일본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해외 오징어 어업 10월 시점 생산량은 아메리카대왕오징어(이하 대왕오징어)가 70만~8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20~30% 감소한 반면,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는 6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25만톤 증가했다. 러시아산 살오징어 어업은 최근 시즌이 시작되었다.

칠레는 시즌 전반은 호조였으나 후반에 부진해, 최종적으로 6만 7,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어

획이 계속되는 페루는 20만~30만톤으로 지난해 50만~60만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살오징어는 올 시즌 어획이 최근 시작되었다. 지난해는 10월 이후로 어업이 본격화되어서 올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지 소식통은 1만 5,000톤에서 1만 6,000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8일자



2022년 명태 필렛 가격, 4,000 달러 넘어설 수도 수요-공급 격차가 '공급망 충격파' 유발할 수 있어

러시아·미국산 명태 냉동 필렛·블록 가격이 2022년 톤당 4,000 달러를 넘어서고,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이 명태 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러시아 Hidrostroy사 산하 Polar Bear Enterprise의 Torunn Halhjem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재고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PBO(가시 제거) 필렛·블록 부문에 '공급망 충격파'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Halhjem은 지난 20년을 통틀어 총 2차례 글로벌 명태 필렛·블록 시장 “공급망 충격파”가 닥친 적이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일시적 공급 부족과 물량 지연으로 인해 세 번째 충격파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alhjem은 다가올 공급망 충격파로 인해 PBO 명태 블록은 2022년 톤당 4,000 달러까지 치솟고, 현물 구매 시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alhjem은 최대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최대 소비

가 시작되는 시점에 공급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명태 필렛·블록 수급 격차는 지난해 수치인 2만 5,000톤에서 대폭 증가한 8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Halhjem은 2021년 세계 수요가 지난해 대비 3만톤 증가한 53만톤, 공급량은 2만 5,000톤 감소한 45만톤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 Halhjem은 수요에 맞춰 공급이 조정될 때까지 이 격차는 8~10개월 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공급의 경우, Halhjem은 명태 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 필렛 생산량이 다소 회복된 45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중국과 아시아의 더블프로즌(냉동된 어획물을 가공하여 다시 냉동) 필렛 생산량은 15만톤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23일자

日 미국산 명태 연육 가격, 기록적 상승 10월 초 가격 kg당 80엔 상승

어묵의 주원료가 되는 미국산 명태 냉동 연육의 일본 가격이 기록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10월 상순 현재 일본 내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kg당 60~80엔 상승했다.

올해 일본의 명태 연육 수입량은 1~8월 누계 5만 3,073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미국산 명태 어획량이 흥어였던 지난해보다 많았기 때문에, 9월 25일 시점에서 명태 연육 생산량

은 19% 증가한 18만 7,769톤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2019년과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고, 타 생산지의 연육 생산 침체를 만회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 냉동 연육 재고량은 7월 말 시점 지난해 동월 대비 13% 감소했고, 그 중 명태 연육 재고량은 18% 감소로 특히 적은 수준이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8일자



러시아 명태 필렛·블록 생산, 미국과 격차 좁힐 전망

2025년 19만 톤까지 생산량 증가 예측

러시아 Gidrostroy사 산하 Polar Bear Enterprise 임원 Torunn Halhjem에 따르면, 러시아 선단 개선 프로그램에 힘입어, 러시아 명태 필렛 및 민스 블록 생산량은 2025년에 미국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Halhjem는 러시아의 명태 필렛 및 민스 블록 생산량이 올해 10만 6,000톤에서 2025년 19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생산량은 올해 15만 1,000톤, 2022년 17만 5,000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만톤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Halhjem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선단은 196만톤의 명태 쿼터 중 최대 10만톤을 소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렛·블록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9월 13일까지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필렛

및 민스 블록 생산량은 8만 9,000톤으로, 2020년 필렛·블록 생산량인 8만 1,000톤을 상회했다. PBO(가시제거) 필렛 생산량은 6만 6,000톤으로 2020년 생산량보다 1만톤 많았다. 민스, PBI(가시 미제거), 딥스킨(껍질, 지방 제거) 필렛 생산량은 각각 1만 3,000톤, 8,000톤, 2,000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 H&G 생산량은 45만 1,000톤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70만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한편, 미국 명태 쿼터의 92%가 소진된 9월 11일 시점에서, 미국 필렛 생산량은 14만 8,000톤으로 20% 감소했다. 미국 PBO 블록 생산량은 6만톤으로 28% 감소했으며, PBO 필렛 생산량은 1만 5,000톤으로 21% 감소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27일자



RFC, COFCO와 중국 명태 공급 계약

2024년까지 명태 필렛, 연육 5만톤

중국 최대 식품 가공업체인 중량집단유한공사(COFCO)와 러시아 최대 명태 어업회사 RFC는 2024년까지 약 5만톤의 명태 필렛과 연육을 중국 시장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한편, RFC는 올해 3분기 명태 필렛, 연육, 민스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까지 9개월간으로 보면 20% 증가했다.

RFC 9월에 6번째 슈퍼트를 신조선의 용골거치식을 가진바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0월 12일자



日 수산청, 명태 자원평가 결과 발표

오호츠크해 남부,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량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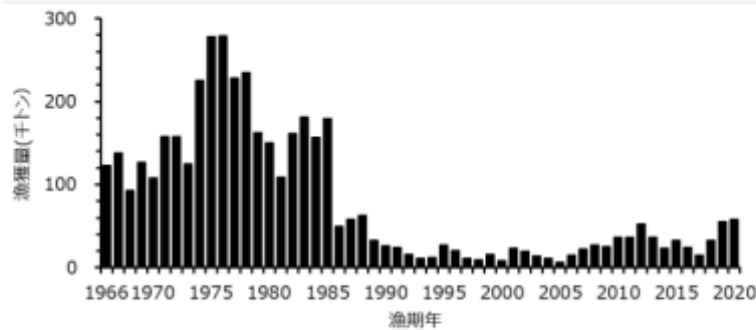
일본 수산청이 명태를 비롯한 수산물 5종 14계군에 대한 자원평가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 오호츠크해 남부 계군은 일본 수역과 러시아 수역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성장 시기에 일본 수역을 내유하는 '경계왕래성 자원'이다. 이들의 최근 일본 어획량은 러시아 수역으로부터의 내유량에 좌우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0년 이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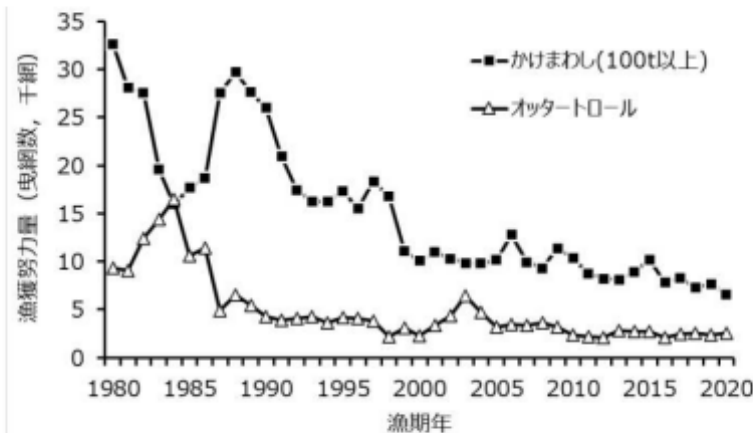
내유량은 2만~5만톤대로 추정되며, 2020년은 5만 8,000톤을 기록했다.

해당 계군의 일본 수역 어획은 대부분 근해 저인망 어업에 의한 것이다. 허가 척수는 1986년 80척에서 2016년 이후 14척까지 감소했다. 그 외 방식의 어업 모두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량이 억제되는 추세이다.

* 기사 출처: 일본 수산청 발표 자료, 2021년 9월 30일자



일본 오호츠크해 남부 명태 계군 어획량 (단위: 1,000톤)



어획노력량 (예인망수, 단위: 1,000망)

■: 저인망(100톤 이상) △:오터트롤



日 태평양 명태 어군, 풍어 전망

5세어 어획량 증가 예상

일본 홋카이도 독립종합연구기구(北海道立総合研究機構) 하코다테 수산시험장은 도남태평양(홋카이도 남부 태평양) 해역 명태 산란 내유군 분포 조사 결과에서, 2016년급군(年級群, 특정 년도에 출생한 어군)이 고품도연급군(高豊度年級群, 풍부함의 정도가 높은 연급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명태 태평양계군은 2010년급 어군 이후 자망에 의한 어획량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기에는 2016년급이 5세어가 되어 산란장에 내유하기 때문에 어획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해당 수산시험장에서는 도남태평양 해역의 자망 어업 및 연안 저인망 트롤 어업에 의해 어획된 명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연령 분포를 조사하며, 이를 통해

어획물의 연령별 어획 마리수를 추정하고 있다.

그 추이를 보면 4세부터 어획 마리수가 늘어나 이듬해 5세부터는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2020년도 조사에서는 4세(2016년급군) 어군의 어획 마리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어군이 풍부했던 2007년급군(2011년도 출생)과 2009년급군(2013년도 출생)과 동일한 수준이다.

명태가 4세부터 5세까지 성장해 체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급군이 5세가 되어 어획물의 주가 되는 2021년도 어획량은 202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9월 27일자

중국 명태 소비·수출, 대폭 감소 전망

2022년까지 수출 감소 예상...중국 내 소비도 감소 전망

러시아 Gidrostroy사 산하 Polar Bear Enterprise 임원 Torunn Halhjem에 따르면, 러시아산 명태 머리·내장제거(H&G) 필렛 원료 수입 감소로 인해 중국의 더블프로즌(냉동된 어획물을 가공하여 다시 냉동) 명태 수출이 2021년과 2022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Halhjem은 중국이 주를 이루는 아시아 더블프로즌 냉동 명태 수출이 2022년에 2019년 수출량보다 약 10만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Halhjem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 명태 냉동 필렛·블록

수출량은 2021년에 지난해 대비 21% 적은 15만톤까지 감소한 후, 2025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Halhjem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의 2019년 더블프로즌 명태 냉동 필렛·블록 수출은 25만 1,000톤이다.

Halhjem은 또한 올해 중국의 국내 H&G 소비가 지난해 대비 50% 감소한 5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중국의 국내 H&G 소비량은 약 15만톤이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24일자



명태 단백질, 간병 필요 고령자 근력 강화 효과 운동 어려운 고령자 대상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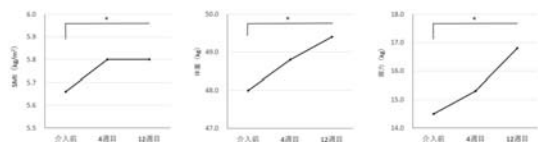
일본수산주식회사(이하 일본수산)가 일본 도쿠시마 대학과 명태 단백질의 고령자 근육증가 효과에 관한 합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쿠시마대학 첨단효소화학연구소 당뇨병 임상·연구 개발센터 모리 히로야스(森博康) 조교수는 지난 10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68회 일본 영양개선학회 학술총회에서, 노인 시설에 입소한 요개호(要介護, 와 병생활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간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고령자 21인을 대상으로 한 명태 단백질 근육증가 효과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 21인에게 명태 단백질 4.5g을 함유한 시험식을 12주간 매일 섭취하게 하고, 사지골격근량지수(SMI), 체중, 종아리 굵기, 악력, 보행 속도 등의 측정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에

게 시험기간 동안 특별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일상 생활을 평소대로 유지하게 했다.

그 결과, 실험 개시 12주차에 SMI·체중·악력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운동이 곤란한 요개호 고령자의 골격근량 또는 근력 개선에 명태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왼쪽부터 SMI, 체중, 악력 변화량, *p<0.05)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4일자
일본수산 홈페이지, 2021년 10월 1일자

러시아, 수산자원 이용세 인상 발표 명태 이용세 4,300 루블로 인상

러시아 농무부가 명태, 대게, 홍어 등 수산생물자원 이용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이미 타 러시아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승인된 상태이다.

상업적 가치가 높은 주요 어종의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오호츠크해 명태: 톤당 4,300 루블(이전 3,500 루블) ▽그 외 해역 명태: 4,300 루블(2,000 루블) ▽가자미류: 2,100 루블(1,000 루블) ▽넙치류(검정가자미 포함) 1만 2,600 루블(3,500 루블) ▽홍연어: 8만 루블 (3만 5,000 루블)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9월 16일자



GAPP, 명태 관련 자금지원 계획 발표

16개 사에 약 160만 달러 지원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는 알래스카 명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마케팅 목적으로 16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을 받을 16개 협력사를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GAPP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Gorton's Seafet, High Liner Foods, Alaska Naturals, Pure Catch Nutritional Supplemental Supplements 등의 수산물 기업에 수여되었다. 20개의 프로젝트 중 7개는 이번 어업 시즌에 소형 개체가 많이 어획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명태 연육(surimi) 제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GAPP의 새로운 제휴사인 하와이 Okuhara Food 사는 해당 자금을 자사의 Fishcake 브랜드 런칭에 사용할 계획이며, Trans-Ocean사는 Crab Classic 브랜드 홍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Okuhara사는 Pupu paste 브랜드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익명의 한 국가 식품 서비스 유통업체

는 오는 가을 튀김 캘리포니아 롤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Gorton's사는 에어프라이 명태 필렛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Catch & Fetch사는 애완동물 간식 신제품을, Pure Catch Nutritional Supplements 사는 명태 오일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High Liner Food사는 전국 단위 레스토랑 체인과 손잡고 Alaska Wild Wings를 출시할 예정이다.

GAPP는 또한 Netune Snack사의 알래스카 명태 육포 라인 확장을 위해 2년 연속으로 자금을 수여했다.

Morris CEO는 해당 제휴 프로그램이 한때 큰 부진을 겪었던 알래스카 명태 판매를 위해 2003년 비영리 단체로서 설립된 GAPP의 핵심 업무라고 설명했다. GAPP에 따르면 올해 이들에게 요청된 자금은 약 500만 달러 규모로, 자금 조달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22일자

러시아 냉동 수산물 40주차 가격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중부만 일부 변화

러시아 냉동 수산물 가격이 2021년 40주차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 태평양대구, 명태, 태평양청어 가격은 각각 kg당 150~160루블, 55~70루블, 45~55루블로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북서부 지역 대구, 해덕대구, 청어 현물가격 또한 지난주와 동일한 kg당 185~200루블,

125~135루블, 70~110루블 수준을 유지했다.

러시아 중부 지역 대서양청어, 명태 현물가격은 각각 kg당 105~130루블, 90~110루블로 39주 가격인 kg당 100~125루블, 80~100루블에서 다소 상승했다. 대서양고등어 가격은 kg당 140~150루블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10월 1일자



日 공치 어획, 여전히 적은 수준

‘30년까지 트롤 가공선 5척, 연 12만 톤 공급 목표

일본 공치 조업 주력 어선인 100톤 이상 봉수망 어선이 출어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어획 속도는 여전히 둔한 상태이다. 공치 어장도 계속 공해에 형성되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의 집계에 따르면, 8월부터 9월 21일까지 전국 공치 양륙량은 약 2,360톤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의 2.8배로 증가했으나, 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30% 적은 수준이다.

JAFIC에 따르면 현재 어장은 9월 초와 같은 노삿푸곶 동쪽 1,000m 부근이다. 어획량이 많은 어선의 경우도 하루 10톤 정도로, 대부분 10톤 미만, 어선에 따라 1톤 미만을 어획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전국공치봉수망어업협동조합 오오이시 코헤이 전무는 지난해 다음가는 흉어라고 말했다. 오오이시 전무는 지난해와 2년 전에는 10월부터 조업 상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호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치 어획물은 100~110g 개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120g 개체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큰 개체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AFIC의 집계에 따르면, 9월 21일 기준 전국 공치 평균 가격은 kg당 815엔을 기록했다. 9월 상순 평균은 635엔, 중순 평균은 859엔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일본 북양개발협회(北洋開発協会)에 따르면, 현재 북태평양 공해에서 한국, 중국, 대만 어선 약 100척이 조업 중이다. 이들의 9월 첫째주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주보다 33% 많은 3,614톤이며, 누계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배인 3만 5,039톤을 기록했다.

러시아 어선은 9월 중순 러시아 100해리 내 1척, 북태평양 공해 2척이 조업했으나, 13~19일 주간 어획량은 3척 합쳐 10톤 미만에 불과했다. 조업시즌 누계 어획량은 389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9월 24일자

日 11월 공치 내유량, ‘낮은 수준’ 전망돼

산리쿠 남부-조반 북부 어장 형성 예상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는 10월 8일 올해 제4회 공치 중단기 어황 예보를 발표했다.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 해역의 경우, 11월 상순 내유량은 매우 낮은(간헐적) 수준이 되어 어업이 종료될 전망이다.

산리쿠(三陸,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 미야기현 마쓰시마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 해역의 경우, 10월 중순까지 내유가 없고 하순부터 매우 낮은 수준의 내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상순부터 낮은(저위) 수준으로 증가해, 중순까지 같은 수준의 내유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반(常磐, 이바라키현 히타치국~후쿠시마현 이와키국에 걸친 일본 동해안을 구성하는 지역) 해역의 경우, 10월에 내유가 없고 11월 상순부터 매우 낮은 수준의 내유가 있으며, 중순부터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13일자



EU,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추진 2027년까지 환경 유해 보조금 폐지 목표

유럽의회(EP)는 EU에서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7년까지 그 외 환경 유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환경행동프로그램(EAP)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NGO 'Our Fish'의 최신 보고서 'EU 연료 세제 혜택으로 인한 기후 영향과 수산업계의 이익(Climatic Impacts & Fishing Industry Profits From EU Fuel Tax Subsidies)'에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EU 선단은 매년 7억 5,900만 유로에서 15억 유로의 연료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약 7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와 같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EP,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간 3자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

Our fish 프로그램 디렉터 Rebecca Hubbard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영세 어업자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환경 유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 관행의 종식을 가져올 기회라고 말했다.

EU 어선단을 대표하는 기구인 Europeche는 보고서가 지난 30년간 EU 선단의 주목할 만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근시안적이라고 주장했다. Europeche는 자연산 수산물인 육류와 치즈보다 탄소 발자국이 적다는 NGO Oceana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Europeche는 또한 해운·항공 분야가 국제 경쟁력 보장을 위해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아 왔고, 이들과 다른 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EU 어선의 배출량은 지난 수년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uropeche는 EU 수산업계가 어구, 엔진, 연료 개발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연료 소비를 감축해 왔기 때문에, 유류세 감면이 연료 과소비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17일자

ICES, 2022년 북해 청어 TAC 증가 권고 고등어, 봄 산란 청어, 청대구, 전갱이 감축 권고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는 2022년 북해, Skagerrak, Kattegat, 영국 동부 해협의 청어 총 허용어획량(TAC)을 53만 2,183톤으로 권고했다.

이는 올해 권고치인 36만 5,792톤보다 45%, 올해 결정된 TAC 35만 6,357톤보다 거의 50% 증가한 것이다.

ICES는 2022년 고등어, 노르웨이 봄 산란 청어,

청대구, 전갱이 어획 쿼터 권고도 제시했다. 고등어 쿼터, 봄 산란 청어, 청대구, 전갱이 쿼터를 각각 79만 4,920톤(7%↓), 59만 8,588톤(8%↓), 75만 2,736톤(19%↓), 7만 1,138톤(12.6%↓)로 제시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9월 30일자



MSC 인증 지속가능 수산물 판매, 사상 최고치 기록 최신 연례보고서 발표

해양관리위원회(MSC) 최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에서 2021년 4월까지 MSC 인증 라벨이 붙은 참치 제품의 판매량은 10만 9,534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2020년 동 기간 대비 3만 5,000톤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MSC에 참여 중인 어업은 총 66개로, 단 1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MSC 인증 하에 어획되는 참치는 세계적으로 총 287만톤이며, 이 중 가다랑어가 200만톤 이상이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59만 1,696톤, 눈다랑어는 6만 7,463톤, 날개다랑어는 약 4만 2,000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참치 제품 판매량에서 참치 외

재료나 포장 무게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었다는 점, 인증이 중단되었거나 평가 진행 중인 어업의 어획량도 포함되었다는 점, 이전 보고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했으나 이번 보고서는 부족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MSC 블루 라벨이 붙은 수산물의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6% 증가했다. 이는 주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브랜드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증을 받은 참치 제품 판매량의 경우, 독일이 1만 3,000톤(지난해 대비 83% 증가)로 특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7일자

서사하라(폴리사리오), EU에 직접 어업협상 초대 모로코-EU 수산 협정 승인 취소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

폴리사리오 Oubi Buchraya Bachir 대표는 10월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EU가 인정한 서사하라 대표(폴리사리오)는 스페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모로코와의 수산 및 농업 협정에 대한 EU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후 나온 발언이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폴리사리오가 서사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EU가 모로코와 수산 및 농업 협정을 승인하기 전에 사하라 위인들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8년에 수산 협정이 서

사하라 해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스페인 어업 주요 지역인 Andalusia의 주지사는 일반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스페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현재 EU 11개국 128척이 협정에 따라 모로코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그 중 92척은 스페인 국적이다.

해당 판결 이후 약 2개월 동안 항소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기존 모로코와의 협정은 유효하다.

한 NGO는 『관계자들은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0월 7일자, FiskerForum, 2021년 9월 30일자



대구·해덕대구 H&G, 가격 유지 중

TAC 일부 2022년으로 이월될 수도

H&G 대서양대구·해덕대구 가격은 어획이 느리게 진행되는 와중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2.5kg 바렌츠해 냉동 대서양대구의 운임포함 조건(CFR) 중국 가격은 톤당 4,150 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1kg 이상 해덕대구 가격은 톤당 약 3,800 달러이다. 800g 이상 해덕대구 가격은 톤당 3,650 달러이며, 800g 미만 해덕대구 가격은 톤당 3,050 달러이다.

대구와 해덕대구 가격은 지난 몇 달과 비교해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획 상황 및 2022년 TAC 대폭 감소 가능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최대 어업회사 Norebo사의 유럽·미국 판매 책임자 Sturlaugur Haraldsson은 2022년 쿼터 대폭 감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H&G나 필렛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Haraldsson은 『대구, 해덕대구 시장은 타이트하고 현재 어획량은 열악하다. 해

덕대구는 작은 개체가 더 많이 잡히고 있다. 어획량은 9, 10월에 보통 감소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Haraldsson에 따르면,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대구·해덕대구 TAC는 최대 10%까지 2022년으로 이월될 수 있다.

2021년 36주차(9월 6일~12일)까지의 노르웨이 정부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어업자들은 2020년 이월분을 포함한 총 43만 2,881톤의 쿼터 중 29만 4,906톤을 어획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3만 7,975톤을 어획해야 한다.

바렌츠해 2022년 TAC는 대폭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15일,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는 바렌츠해 대구 TAC를 20% 감축된 70만 8,480톤, 바렌츠해 해덕대구 TAC는 23% 감축된 18만 3톤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위원회는 올해 말 회의를 개최해 TAC를 결정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22일자

러시아 수입업체, 태평양 고등어로 눈 돌려

UltraFish, 고등어 가격 압박으로 새로운 공급업체 탐색

러시아 최대 수산물 수입업체 중 하나인 UltraFish Trading House는 고등어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대서양에서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태평양에서의 조달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UltraFish사의 Alexei Popov 본부장에 따르면 UltraFish사는 러시아에서 고등어 공급 부족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Popov 본부장은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 대서양

고등어 쿼터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및 조달 어려움과 대서양 조업 러시아 어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UltraFish사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9월 28일자



올해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 79억 파운드

10% 증가, 연어·고등어·크랩 수출 호조

현재까지 올해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847억 크로네를 기록했다.

연초 수출이 감소했지만 3분기 급격하게 증가했다. 현재까지 3분기 수출액은 역대 3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연어와 고등어가 수출액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킹크랩과 스노우크랩의 경우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지역별로 보면 수출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아시아이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Renate Larsen 대표는 『중국, 한국, 태국 등 노르웨이 수산물에 눈을 뜨고 있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며 『미국과 이탈리아로의 수출도 성

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어에 대해 『어업협상 부재로 영국 수역에서 어업 기회를 상실한 후 올해 노르웨이 정부에서 자원증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어 쿼터를 증가시켜 보통 가을철 조업 시즌의 경우 9월말이나 10월초에 시작되지만 올해는 8월초부터 시작되었다』며 『그 결과 8, 9월 기록적인 어획고를 올렸다』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Johan Kvalheim 한국·일본 총괄이사는 『일본에서 노르웨이 고등어의 소비가 증가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자들은 다음 시즌까지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0월 7일자

코로나, 유럽인 참치·수산물 구매 행동에 영향

수산물 라벨·환경 관련 정보 관심 높아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설 여론조사 기관인 Eurobarometer는 최근 'EU 소비자들의 수산·양식 제품 관련 습관'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인들은 통조림이나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 라벨 표기정보에 대해 특정한 선호도를 보였다. 66%의 응답자는 어떤 종류의 어류나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했고, 54%의 응답자는 제품이 자연산인지 양식산인지 알기를 원했다. 흥미롭게도, 자연산·양식산 선호도에서 단 32%의 응답자만이 자연산을 선호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양식

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7%에 불과했고, 자연산·양식산 여부에 무관심한 소비자는 15%였다.

어획·생산일에 대한 관심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높았다. 2018년 대비 5% 증가한 44%의 응답자가 환경 정보를 원한다고 답했다. 공급망의 투명성을 기대하는 소비자(33%)도 증가했다. 이들은 어선이 등록된 나라의 정보에 관심이 있다. 흥미롭게도, 해당 조사 결과 젊은 고학력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사회적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15일자



BlueNalu CEO "세포배양 수산물, 대량생산은 아직"

대량생산 관리 가능 단계까지 수년 더 필요해

세포배양 수산물 기업 BlueNalu사 공동 설립자 겸 CEO Lou Cooperhouse는 최근 Edison Investment사가 개최한 웹 세미나 "수산물의 미래: 투자 사례(The future of fish: The investment case)"에서, 세포 기반 수산물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을 하려면 아직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Cooperhouse CEO는 또한 현재의 모델에서는 세포배양 수산물 생산을 위해 바이오리액터(bio-reactor)라고 불리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나, 이를 대규모로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Cooperhouse CEO는 세포배양 수산물 공장이 자동화 대량생산 단계까지 가려면 여전히 몇 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BlueNalu는 양식어 세포에서 직접 재배한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한다. 해당 기업은 영국 Nomad Food사와 유럽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Cooperhouse CEO는 8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세포배양 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참다랑어 생산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한다면 '타 어류와 비슷한 수준(price parity)'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각국 규제 및 허가 문제에 대해, Cooperhouse CEO는 미국이 세포배양 식품 관련 논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EU도 규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 년 안에 다수의 기업들이 제품 판매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17일자

美 법원, '존스법' 위반 벌금 집행정지 명령

CBP 법적 분쟁 해결 전까지 알래스카 명태 운송 가능

최근 미국 '존스법' 위반으로 인해 미국 관세국 경보호청(CBP)으로부터 약 4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 미국 American Seafood 그룹(이하 ASG)이 법원의 예비 집행정지 명령으로 당분간 명태 공급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예비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9월 27일,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에 불거진 존스법 처벌을 막아달라는 탄원을 기각했다.

존스법에는 알래스카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회사에 캐나다 철도가 노선에 포함된 경우 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을 허용한 예외조항이 있다.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은 ASC와 파트너들이 요건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 철로인 Bayside Canadian Railway(BCR)이다. 이 철로는 길이 100피트(약 30m)에 불과하다.

이번 예비 가치분 신청이 통과되면서 CBP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수산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의 미국 접경지대에서는 약 1만 2,000톤의 수산물이 냉동 창고에서 대기 중이다.

* 기사 출처: The Maritime Executive, 2021년 9월 29일자, Undercurrentnews, 2021년 10월 4일, 11일자



대체수산물 생산 기업, 전세계 85개사 이상 전 세계 투자액 1억 달러 이상

대체육류·수산물 개발을 추진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굿푸드인스티튜트(GFI)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시점의 생산기업 수는 식물 기반 제품, 세포 배양 제품, 미생물 발효 제품 제조사를 모두 포함해 세계적으로 85개사 이상이다. 2017년 29개사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산 기업 신규 설립 외에 대기업의 업계 진입,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제휴 등의 사례도 눈에 띈다. 세계 최대 식품음료 기업 네슬레사는 식물 기반 참치 제품에 이어 추가로 관련 상품을 개발 중이다. 태국 타이유니온사는 올해 안에 식물성 참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스타트업 BlueNalu사는 올해 세포배양 수산물의 아시아 시장 개척을 목표로 타이유니온, 미쓰비시상사와 연계하는 MOU를 체결했다.

대체 수산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금년 상반기 투자 총액은 상세 내역이 공개된 7개 안건을 통틀어 1억 1,600만 달러로, 20년간 누적된 수치인 9,100만 달러를 약 반년 만에 넘었다.

해당 보고서 상의 투자 총액은 조사 기업에 안전을 공표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세계적인 총 투자액이나 안전 개수는 위의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경우, 지난해 미국 시장 식물기반 수산물 소매 판매액이 2019년 대비 23% 증가한 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수산물 전체 판매액 중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GFI는 대체 수산물 시장이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 육류 제품의 지난해 소매 매출액은 2019년 대비 45% 증가한 14억 달러로, 전체 육류 제품의 1.4%를 차지했다. 대체 수산물이 대체 육류와 같은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시장 규모는 2억 2,100만 달러로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미국 수산물 판매의 65%가 외식산업이기 때문에, 대체 수산물 시장은 더욱 큰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GFI는 분석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9월 22일자

글로벌 해운사, 컨테이너 운임 상한선 도입 참치 업계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전망

세계 3위 해운회사인 프랑스 CMA GGM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6개월간 해상 운임 현물 가격을 고정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에서 유례없는 가격 상승에 맞서,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한 요금은 2022년 2월 1일까지 적용된다. 또 다른 해운사인 독일 Hapag-Lloyd도 지난주 보험료 및 기타 할증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몇 주 동안 제한할 계획이라

고 발표했다.

CMA의 발표 직후, LF 로지스틱스의 Peter Sundara는 프리미엄과 할증으로 인한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선박 지연과 항구 혼잡이 계속될 때 해운사들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16일자



美 2021년 1~3분기 수산물 소매 판매량 급증

1~9월 매출 약 55억 달러...4분기 긍정적

미국 리서치 기업 IRI와 210 Analytics에 따르면, 2021년 1~9월 미국 수산물 매출은 약 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신선 수산물 매출이 매출액과 매출 물량을 모두 주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9월 신선 수산물 매출액, 매출 물량은 각각 3.9%, 2% 증가했다. 냉동 수산물 매출은 각각 2% 증가, 2.4% 감소했다.

210 Analytics 설립자 Anne-Marie Roerink에 따르면, 신선·냉동·기타 세 분야 모두 2019년 대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냉동 부문은 2019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신선 부문은 33.7%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일부 있으나, 판매 물량과 판매 단위 모두 2019년 대비 월등한 수준이다.

올해 9월만 보면 냉동 수산물 판매는 2020년 대비 7% 증가했고, 2019년 대비 38.4% 증가했다. Roerink는 『냉동 단백질 제품 중 수산물의 9월 매출액은 5억 3,300만 달러로 최다였다』라고 말했다.

신선·냉동 제품은 대폭 증가했으나, 상온 보관 제품(캔·파우치) 매출은 2020년 사재기 수요가 원상복귀되어 14~16% 감소한 19억 달러를 기록했다. 9월 상온 보관 제품 매출액은 2020년 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 대비 8% 증가했다. 참치캔 판매는 2020년 9월 대비 1.7% 감소했으나 2019년 대비 4% 증가했다.

Roerink는 신선·냉동·기타 세 분야 모두 4분기에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식품정보협의회(IFI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4이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다. 또한 요식업 리서치 회사 Technomic에 따르면 소비자의 3/4이 1개월에 1회 이상 집 또는 외부에서 수산물을 섭취하고, 46%가 매주 1회 이상 수산물을 섭취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0월 12일자

중국-태평양 도서국, 12월 수산 정상회담 개최

원양어업에 초점...어업협력 증진 목적

중국이 어업 협력 증진을 위해 2021년 12월 태평양 도서국들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태평양 도서국 어업협력 개발 정상회담은 오는 12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될 중국 양식종자 박람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원양협회장은 이번 주 광저우에서 조직위원회에 합류해 정상회담 및 회담에서 거론될 잠재적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양식업 프로젝트보다 원양어업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10월 사모아 Apia에서 개최된 중국-태평양 도서국 간 경제개발협력 포럼 회의에 이은 것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협력」을 약속하는 선언문이 서명되었다. 중국은 해당 국가들이 생산한 농수산물 수입 증대와 함께 양식 관련 전문지식을 개도국과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0월 14일자



바닷가에서

오 세 영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지는 일몰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 있는 섬을 보아라
홀로 건디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참치·오징어 등 원양산 수산물, 수출에 날개를 달다!

수산물 수출 17.6% 증가, 참치 24.8%, 오징어 124.5%, 이빨고기 26.7%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올 3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8월 말을 기준(누적)으로 전년보다 17.6% 증가한 1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부터는 매월 2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식 수요 위축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던 참치, 이빨고기 등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원양산 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참치·오징어·이빨고기 등 원양산 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31.0% 증가한 4억 7천 1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24.8% 증가하며 3억 9천 5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외식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횡감이나 스테이크로 활용되는 냉동 필레트 형태의 수출이 크게 증가(4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19.8%)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의 경우,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124.5%)한 4천 9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원양산 오징어의 어획량이 증가한 것에 더해, 중국의 경우 가공용 오징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약 4.5배(452.8%, 3천 1백만 달러) 늘어났으며, 미국 역시 기존 한인마트 외에 다양한 공급처로 판로를 확대하면서 수출이 전년보다 37.3% 증가(9백만 달러)했다.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빨고기의 경우, 수출액이 2천 7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26.7% 증가했다. 이는 어획량 증가와 더불어 미국 내 외식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ESG가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

면서, 해외 유통업계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수출기업의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MSC는 불법 어획, 남획, 해양환경 파괴 등의 활동을 방지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예비 심사부터 취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업계의 MSC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MSC 위탁 인증심사기관과 협력해 인증 준비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인 한국수산회에 '국제인증지원센터'를 개설해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 취득과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국내 원양기업인 동원산업(주)이 참치 선망(중서부 태평양)과 참치 연승(중서부동부 태평양)에서 MSC 인증을 취득했고, 올해 8월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국내 원양기업인 정일산업(주)이 크릴 트롤(남극해)의 MSC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외에, 참치 원양업체 및 참조기갈치·고등어 등 연근해 어업에서도 MSC 인증 취득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견·강소 원양기업을 육성하고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원양 수산물도 단순 원물 형태의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 해양보호구역 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 의지 밝혀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수) 화상회의로 열리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이하 CCAMLR) 해양보호구역(MPA) 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EU,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9개 CCAMLR 회원국과 함께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CCAMLR에서 논의 중인 '동부남극해와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의 주 제안국인 EU가 올해 'CCAMLR 연례회의(2021. 10. 18.~10. 29.)'에서 이 제안서를 채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EU 환경해양수산 장관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특별 초청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남극 해양생태계 보존 관리를 위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공동 발의국의 지위에 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총 3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우리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남극 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활동 진흥법」 10월 14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선선한 가을바람, 제철 수산물과 함께 즐기세요!

10. 4~24.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 가을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선한 가을을 맞아 제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0월 4일(월)부터 10월 24일(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특별전'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590억원 규모의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맞이 특별전(1. 18.~2. 10.)', '봄 특별전(3. 8.~3. 31.)' 등을 개최하여 약 1,045억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

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소비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감안하여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민물장어, 전복을 이번 행사품목으로 지정했으며, 그 외에도 참여업체에서 자체 행사품목으로 새우, 꽃게 등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 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제안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간 선박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되어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

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

코로나19 방역관계자 등 대상으로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제공

해양수산부와 태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0월 9일(토)부터 11월 12일(금)까지 '2021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은 의료진, 소방인, 해수욕장 방역 인력, 장기승선 선원 등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치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번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청포대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숙박형(1박2일 또는 2박3일)이, 몽산포 해수욕장에서는 체험형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20~30명 내외)을 대상으로 하고, 야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숙박형은 총 8회차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인 및 소방관, 해수욕장 방역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변요가, 바다명상 등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매 회차마다 별도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험형의 경우 매주 토요일(10월 중)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양 노르딕 워킹*, 해변필라테스, 해양호흡 체조 등 신체 건강 증진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중 참가자가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피트(머드) 온열팩, 솔트스크럽 등 해양치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지역민, 관광객 등 해양치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강준석 씨 임명

부산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책임자로 평가 받아

해양수산부는 9월 30일(목)자로 부산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1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 3년이다.

강준석 신임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 함양고와 부산수산대 수산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헐 대학교(University of Hull) 수산정책학 석사 및 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 사장은 1986년 기술고등고시 제22회로 수산

청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부산항을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책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차관 재임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한 북항재개발사업,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만큼 북항재개발, 부산신항 서측 '컨'터미널 개장, 진해 신항 개발 등 부산항의 여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박설진 차장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20	기획홍보지원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북양, 품치
부산지부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이형균 이사	(051) 253-3388	총괄
	김현애 과장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이동주 팀장	051) 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해외진출지원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832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7	OFIS, 해외투자, 행정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결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8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발행 : 2021년 10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적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